

맛과 멋, 그리고 만추(晩秋)의 서정 백제문화의 본고장, 논산땅 둘러보기

글·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이즈음 논산 가는 길은 가을 서정이 물씬 배어 있다. 천안 ~ 논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논산은 오랜 옛날부터 예학(禮學)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공주에서 시작하여 부여와 논산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는 옛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고장이기도 하다.

첫 방문지는 서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는 국도변, 연산면 천호리에 있는 개태사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936년에 세운 절이다. 태조는 절을 세우면서 나라에 전쟁의 기미가 있으면 부처의 위력과 하늘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원문을 손수 지어 바쳤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하나의 촌락을 이룰 정도로 큰절이었지만 고려 말기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점차 사세가 기울고 말았다. 그 후 조선시대에 와서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태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있어 그 당시 절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이 가마솥은 옛날에 절 승려들이 국을 끓이고 밥을 지을 때 쓰던 것이다. 여기에 얽힌 일화도 전하는데, 가마솥을 일본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사람이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고, 경성박물관(현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는 동안 전국에 가뭄이 들어 이 가마솥의神通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개태사를 감싸고 있는 천호산은 원래 '황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고려 태조 왕건이 '하늘의 도움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입상

개태사를 나와 논산으로 가다 보면 참으로 평화로운 들판이 내내 펼쳐진다. 황금들녘 여기저기에는 우스꽝스런 허수아비가 드문드문 서 있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벼를 베는 모습도 보인다. 범골, 여우네, 꿩말, 거북외, 새뜰, 노루재, 부엉이, 버들골, 함박봉, 감나무골, 왕대골, 반송골, 벗가리. 마을 이름들도 참 정겹다.

을 받았다' 는 뜻으로 '천호산' 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개태사를 나와 논산으로 가다 보면 참으로 평화로운 들판이 내내 펼쳐진다. 황금들녘 여기저기에는 우스꽝스런 허수아비가 드문드문 서 있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벼를 베는 모습도 보인다. 범골, 여우네, 꿩말, 거북외, 새뜰, 노루재, 부엉이, 버들골, 함박봉, 감나무골, 왕대골, 반송골, 벗가리. 마을 이름들도 참 정겹다.

논산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촉사다.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절 또한 사연이 깊다. 우람하게 솟은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낙엽송이 훑날리는 계단길이 이어진다. 새롭게 단장된 보재루를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2층 규모의 대웅보전과 중심 당우인 미륵전이 눈 앞을 꽉 채운다. 관촉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온화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이다. 흔히 '은진미륵' 이라 부르는 이 석불은 높이가 18미터에 달한다. 몸체와 머리 부분을 따로 조각해 연결한 석불은 단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마, 턱, 눈, 코, 입, 귀는 하나같이 모두 크다. 어깨까지 내려온 귀와, 양손은 가슴까지 들어올렸고, 좁은 어깨에는 법의가 걸쳐져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빛이 많이 바랬지만 석불 특유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품새는 여전하다. 미륵불 앞으로 미륵전과 나란히 서 있는 배례석과 석등도 눈길을 끈다. 연꽃 세 송이가 새겨진 배례석은 절을 찾은 불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보물로 지정된 석등은 고려 목종 9년 미륵불상과 함께 완성됐으며, 등을 떠받치는 네 기둥이 가늘어 웬지 불안한 느낌을 준다.

관촉사를 나와 철새 탐조지로 이름난 탐정호로 간다. 부적면 신흥리와 가야곡면 중연리에 걸쳐 있는 탐정호(논산지)는 매년 겨울이면 수백 마리의 원앙과 흰 큰고니, 가창오리, 가방오리, 알락오리, 쇠오리 등이 찾아들어 장관을 펼친다. 요즘에는 수초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백로와 왜가리떼를 가끔 볼 수 있다. 물이 맑아 잉어, 쏘가리, 메기 등 담수 어종도 풍부하다. 호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새벽녘 물안개 필 때나 일몰 무렵이 좋다. 호수를 끼고 도는 드라이브(소요 시간 20분 정도)도 나름대로 운치 있고, 순환도로를 따라 들어선 맛집과 카페들은 별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근사한 카페에 들어가 호수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1백90만평에 달하는 호수 면적은 충남 관내에서 두 번째로 크다. 대둔산 계곡물이 모여들어 이룬 호수는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호수에 기대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이 탐정



탐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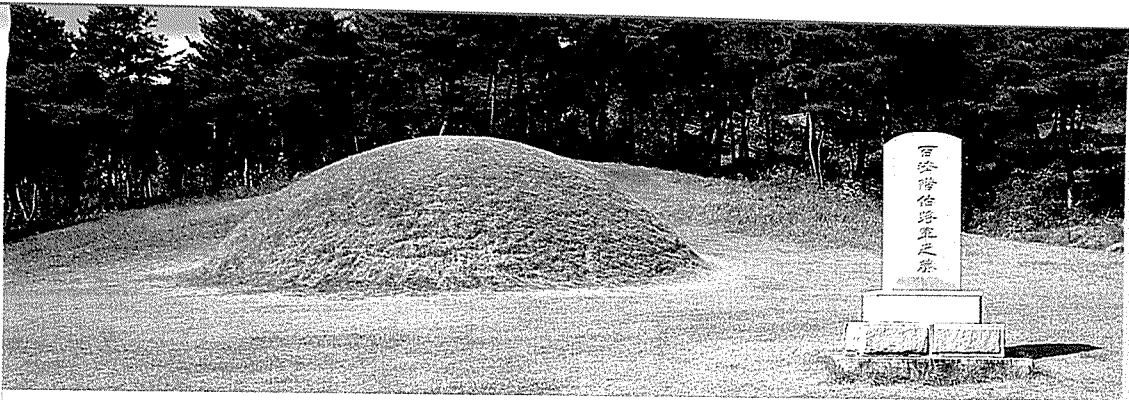
호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평리는 우리 역사를 증언하는 곳이기도 하다. 계백장군이 신라 군대와 맞서 싸웠던 황산벌이 바로 이곳이다. 속칭 '놀피' 라고도 하는 황산벌은 지금 딸기밭과 인삼밭으로 변하고 일부는 호수에 잠겨 그 흔적이 묘연하다. '놀피'는 논산의 원래 이름이다. 땅 빛깔이 누런 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의 논산은 '놀피'와 발음상 가까운 한자를 골라 붙이다 보니 그렇게 굳어진 것이다. 신평리 수락산 기슭에는 계백장군의 묘가 있다. 당시 백제군은 황령산성, 신작리산성, 모촌리산성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신라군에 밀려 수락산, 충곡리, 황산성으로 몰려나 최후를 마쳤다. 이 수락산 기슭은 계백의 절사대가 마지막으로 쓰러진 곳이다. 묘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탐정호는 그림 같다.

논산 여행은 젓갈로 유명한 강경포구에서 마무리하자. 전국 최대의 젓갈 집산지인 강경은 일찍이 수운이 발달하여 평양시장, 대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혔다. 금강에서 나는 수산물과 논강평야의 농산물 그리고 중국의 포목들이 활발히 거래되면서 하루에 2만-3만명의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때문에 일본은 이곳을 경제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기도 했다. 강경장이 서면 호남 북쪽 지방과 충남 남부지방에서 들어온 각종 산물이 뱃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금강을 통해 중국의 무역선이 들어오기도 했다. 강경 일대에는 그 당시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다리를 세워 두었는데, 채운면 강경천 독 아래에 있는 미내다리(漢奈橋)가 그것이다. 이 다리는 돌로 쌓은 석교로써 무지개 형태이다.

옛 영화가 아슬히 그려지는 강경포구 옆 바위산 중턱에는 우암 송시열이 세운 팔괘정(八卦亭)이 서 있다. 금강을 앞에 두고 서향으로 배치된 이 정자는 넓은 대청과 온돌방이 꾸며져 있는 겹처마 팔작지붕의 한식 기와집이다. 팔괘정에서 금강을 끼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옥황상제의 전설이 서린 옥녀봉이 우뚝하다. 먼 옛날 옥황상제의 딸이 금강에 내려와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올라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급한 나머지 앞가슴을 내놓고 올라오는 딸을 보고 화가 난 옥황상제는 딸에게 거울 하나만 주고 땅에 살게 했다. 옥녀(딸)는 슬퍼 울다 지상에서 죽고 말았는데 죽은 자리에 묘처럼 봉우리가 생겨났다. 이 봉우리를 옥녀봉이라 부르고 거울은 바위로 변하여 용영대가 되었다고 한다. 옥녀봉에 오르면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 줄기와 전통미 물씬 풍기는 강경읍내가 한눈에 바라 보인다.

현재 강경에는 70여 개의 젓갈점포가 있다.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 어리굴젓, 조개젓, 갈치숙



계백장군의 묘

젓, 아가미젓, 꼴뚜기젓, 멸치액젓 등 온갖 젓갈이 다 모여 있다. 젓갈 시장은 대체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성시를 이룬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강경포구의 명물은 단연 젓갈이었다. 서해에서 잡은 새우를 배에서 젓갈로 만든 후 충청도 내륙지방으로 내다 팔려면 반드시 강경을 지나가야만 했다. 이곳에서 파는 젓갈은 서해안 연근해에서 잡은 새우만을 엄선, 석굴과 토굴에서 저온 숙성시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특히 강경의 멸치젓국물은 그 맛이 뛰어나 호평을 받고 있다. 젓갈시장은 강경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보통 새우젓이 2kg에 1만5천원 ~ 1만7천원선이고, 멸치액젓은 4리터에 7,000원 ~ 10,000원선에 거래된다. 젓갈 가격은 시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곳의 젓갈은 품질이 좋고 값이 비교적 저렴해 김장철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주부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여행메모 (지역번호 041)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논산 나들목이나 경부고속도로 천안을 지나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탄다. 논산 나들목-연무-1번 국도-논산-논산 사거리 우회전-643지방도로 연결지점 우회전-3km-관촉사. 탐정호는 이곳 관촉사에서 가야곡면 방향 643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 만나는 농협은진주유소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논산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부적면 탐정리와 가마바위로 가는 시내버스(1시간 간격, 20여 분 소요)를 타면 된다. 논산-관촉사간 시내버스가 20분 간격(10분 소요)으로 있다. 대중교통은 서울강남터미널-논산(50분 간격, 2시간 40분 소요). 열차편은 서울역(호남선)-논산 강경역에서 하차(50분 간격, 2시간 30분 소요). 논산시내-대전 쪽 4번 국도-황산벌 휴게소-계백 장군 전적지. 호남고속도로 연무 나들목(68번 지방도)-강경읍(20분 소요), 서대전 나들목(1번 국도)-강경(40분 소요).

맛있는곳 탐정호 주변에 붕어튀김, 붕어찜 등을 내놓는 음식점이 많다. 안천매운탕(732-7796), 일송정(742-5539), 등나무집(741-1553), 호반가든(741-5668), 별장가든(742-5597), 호수가든(741-5425) 등.

잠 자 리 탐정호와 관촉사 부근에레이크힐(742-8851), 그랜드모텔(742-4547), 산장파크(736-9177), 미륵모텔(735-1804), 세인파크(736-2303) 등 숙박시설이 있다. 하루 숙박료 4만2-3인실-9만원선. 논산시청 문화공보실(730-1221).